

위기의 도시민구단 ‘쌘쌘이가 문제’

사커 토크 | 임금 체불에 해체 언급까지...도시민구단의 미래는?

시장·도지사 임명으로 운영되는 기형구조 승격해도 돈 걱정...형편에 맞춰 운영해야 J2리그에 비해 비중 높은 인건비도 문제 선수들도 구단 존립 책임...의식변화 필요

스산한 날씨만큼이나 K리그에도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주로 도시민구단들이 대상이다. 시즌 중 여기저기서 불거졌던 임금체불에 이어 시즌이 끝나자 성남FC와 경남FC를 둘러싸고 있는 구단주들의 입에서 ‘해체’ 언급까지 튀어 나왔다. K리그의 한 축 도시민구단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2014시즌을 기준으로 클래식(1부리그) 12개 구단 중에선 3개, 챌린지(2부리그) 10개 구단 가운데선 7개가 도시민구단이다.

●도시민구단의 현실은? ‘지역민 화합 도모’라는 각 도시민구단의 존립 가치가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습관적으로 기형적 인사조치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진짜 전문가들은 내쳐지곤 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부르짖는 ‘축구와 정치의 분리’가 국내 도시민구단에선 단 세상이 아니다. 구조적 한계의 영향이 크다. 한 축구인은 “(도시민구단은) 시장과 도지사가 임금을 뿜어주지 않으면 지역에서 한 푼도 건질 수 없다. 스스로 벌여 쓸 구조도 아니다. 구단주 결재 하나를 위해 청사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형편이다. (행거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유례를 찾기 힘든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올 시즌 도중 임금체불 사실이 알려진 뒤로 순위가 하락해 결국 목표했던 챌린지 4강과 PO 진출에 실패한 안양FC가 대표적 사례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프로의 근간 중 하나는 역시 돈이다. 물론

모든 도시민구단의 행편이 똑같지는 않다. 클래식 도시민구단들은 연간 100억~150억원을 쓴다. 반면 챌린지 구단들의 연간 운영비는 30억~90억원이다. 클래식 승격에 성공한 도시민구단들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클래식 운영비의 하향선처럼 돼버린 100억원대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핵심이다. 시도급고의 자금과 향토기업의 후원금 등이 사실상 재원의 전부인 마당에 즉각적인 운영비 증액은 결코 녹록치 않다. 이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클래식으로 승격됐다고 해서, 챌린지로 강등됐다고 해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게 K리그의 ‘서늘한 자화상’인데, 바로 이 지점이 도시민구단들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1부리그 클럽에 유럽처럼 엄청난 중계권료나 배당수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입장수익이 요동을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히 ‘형편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축구계 일각의 시각이다. 한 축구인은 “클래식이라고 꼭 100억원을 쓸 필요는 없다. 80억

원을 쓸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추면 된다. 없는 살림에 쓰는 것부터 생각하는 건 무리다”고 꼬집었다.

●절실한 선수환 구조 지출구조와 선수들의 의식 변화도 시급하다. K리그 각 구단의 평균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60~70%에 달한다. 반면 일본 J리그, J2리그 구단들 대부분은 50% 이하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 구단들의 씀씀이는 시사하는 바는 크다. 지난해 쇼난 벨마레는 116억원, 사간노스는 130억원, 오이타는 87억원을 썼다. 올 시즌 막판 지방 모 구단에서 일액액의 수입을 나눠주겠다고 하자, 선수단은 오히려 그만한 액수를 금융업체에서 대출받아 추가로 달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프런트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겠지만, 선수들 또한 구단의 존립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10월 자유선발로 광주FC 유니폼을 입은 박선홍이 9일 2015 K리그 1부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파이팅을 다짐하고 있다. 상임 | 임민환 기자

광주FC 박선홍 “난 봉 잡았다”

10월 자유선발로 계약 후 행운의 클래식 승격 “그때 상상도 못했는데...공격포인트 10개 목표”

“그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신분이 바뀌기까지 채 2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공격형 미드필더 박선홍(21·전주대)은 10월 자유선발(계약기간 5년·연봉 3600만원)로 광주FC 유니폼을 입었다. 8월 아마추어 현장을 찾은 광주 남기일 감독대행의 눈에 든 덕분이었다. 이 때만 해도 광주의 클래식(1부리그) 승격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챌린지(2부리그) 정규시즌 4위로 준플레이오프(준PO)에 오른 광주는 강원FC와 안산강철청을 연파한 뒤 클래식 11위 경남FC마저 제압하고 승격에 성공했다.

박선홍은 이 모든 과정을 초조히 지켜봤다. 남의 일이 아니었다.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광주-경남의 승강 PO 1차전을 관전했다. 광주의 3-1 승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함을 느꼈다. “승격을 확신했다. 형님들이 무척 고마웠다. 난 정말 봉을 잡았다.”

박선홍은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열린 2015 K리그 신인 드래프트 현장을 찾아 광주의 정식 선수가 됐음을 신고했다. 남 감독대행은 “현역 시절 (승)정환이 형을 보는 듯했다. 볼 배급 능력이 탁월하다. 플레이메이커로 전혀 손색없다”고 칭찬했다.

사실 박선홍은 아픈 기억을 지니고 있다. 이리동중 시절 발목을 크게 다쳤다. 뼈가 산산조각 났다. 회복까지 1년이 필요했다. 부상 트라우마에 잠시 ‘외도’를 했다. 골프채를 잡았다. 그러나 곧 돌아왔다. 혹독한 시련을 극복한 그는 U-21 청소년대표, 대학선발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부상은 간절함이란 선물을 줬다. 신인의 패기로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을 올려 광주가 (클래식) 잔류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열정을 쏟았다.”

운 좋은 박선홍의 경우와는 달리, K리그의 취업난은 심각했다. 자유선발(계약금 주고 영입) 29명, 우선지명(산하 유소년 클럽) 36명이 일찍 팀을 찾은 가운데 526명(우선 지명 포함)이 지원한 이월 드래프트에서 순번(1~6라운드) 지명을 받은 선수는 22명에 불과했다. 번외지명도 26명에 그쳤다. 1라운드(연봉 5000만원) 지명은 허제녕(아주대)을 뽑은 광주가 유일했다. 해체 위기의 경남FC는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상임 | 남정현 기자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왼쪽 5번째)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K리그 클래식 감독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슈틸리케 감독과 참석자들이 오찬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민환 기자 minani84@donga.com 트위터 @minani84

슈틸리케 감독 “축구에 정치 개입...안타깝다”

K리그 클래식 감독들과 오찬 모임

울리 슈틸리케(60) 축구대표팀 감독은 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K리그 클래식(1부리그) 감독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슈틸리케 감독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찬에는 황선홍(포항), 최용수(서울), 윤정환(울산) 등 7명의 감독이 참석했다.

최근 K리그에선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챌린지(2부리그) 강등이 확정된 경남FC의 해체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사태 전개로 도시민구단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해 슈틸리케 감독

은 “승격과 강등은 축구의 일부다.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오찬 모임에 대해서 “(감독들과) 처음 만났는데 의미 두겠다. 앞으로는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최용수 감독은 “이번 모임을 통해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전북현대, 불우이웃돕기 1억703만원 기부

전북현대가 지난달 27일 클럽하우스가 위치한 전북 완주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703만4155원을 전달한 사실이 9일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3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제기로 70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던 최강희 감독은 당시 팬들이 모금해 전해준 703만4155원을 성금과는 별도로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선수들은 사회공헌사업 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연봉 1%를 도서복지 학생 초청에 사용하는 등 평소에도 이웃사랑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청용, 2개월 연속 불타 ‘이 달의 선수’ 선정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청용(26·사진)이 2개월 연속 소속팀 불타의 ‘이 달의 선수’로 선정됐다. 불타는 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11월의 선수’로 이청용이 뽑혔다고 발표했다. 이청용은 팬 투표에서 48%의 지지를 받아 앤드루 톤리건(22%), 크레이그 데이비스(19%)를 따돌렸다. 이청용은 11월 4경기에 모두 출전해 2골·2도움을 올렸고, 팀은 3승 1무를 기록했다.



편집 | 김대현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성에 과학을 세우다!

확대·조루·발기력강화
국내유일 ‘성기능강화용링’ 특허

크게 단단 오래 자주

수술없이!

착용당일!

사용간편!

반영구적!

특허 제10-0756243호

뉴맨과 함께 하세요!

- ▶▶▶ 착고 빨라서 자신 없는 젊은 남성!
- ▶▶▶ 30%이상 커지면서 시간연장
- ▶▶▶ 강직도가 약해 중간에 시들어 고민인 남성!
- ▶▶▶ 단단한 강직도가 끝나도 쉬 시들지 않음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크게! 단단! 오래!

50만고객 돌파! 20여개국 수출!

전문상담원과 1:1 맞춤관리!

누구나 간편하게 착용가능!

안전하고 과학적인 링!

주소창에 newm.kr만 입력하세요.

NAVER 뉴맨 www.newm.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

평상시 사이즈 단위 cm	뉴 맨 호수
6.5이하	주문제작
6.5	1호
6.75	2호
7	3호
7.5	4호
7.75	5호
8	6호
8.25	7호
8.5	8호
8.75	9호
9	10호
9.25	11호
9.5	12호
9.75	13호
10	14호
10.25	15호
10.5	16호
10.75	17호
11	18호
11.25	19호
11.5	20호
11.75	21호
12	22호
12.25	23호
12.5	24호
12.75	25호
13	26호
13.25	27호
13.5	28호
13.75	29호
14	30호
14.25	31호
14.5	32호
14.75	33호
15	34호
15.25	35호
15.5	36호
15.75	37호
16	38호
16이상	주문제작

이 모든 기능에도 착용 후 15일내 환불가능 시스템! **T.1577-5579, 010-7636-3346**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26-6번지 (주)케이앤제이스포츠